



▲ 2022 년 야유회

(▲▼사진제공: 홍청일 동문)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문들은 6 월이 되면 매년 야유회를 가져왔다. 올해는 토요일인 6 월 11 일 Rolling Meadows 시의 Busse Woods 에서 개최하였고 근교에 거주하고 있는 120 여명의 동문들이 모였다. 1940 년대 입학한 동문도 참석하였으며 2010 년 입학한 젊은 동문도 함께하였다. COVID-19 의 격리에서 벗어나 6 월의 초원에서 환상적인 날씨와 동문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의 동창회 활성화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용락 (공대 48 입) 동문이 거동이 쉽지 않음에도 조만간 아리조나 주로 이사하게 되어 야유회에 참석하였다. 참석한 모든 동문들은 선배님의 동창회 발전을 위한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며 건강을 기원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용락동문과 함께 한 사진과 더불어 전체 동문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기념 배너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 배너에 아쉬움과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동문들



▲ 야유회를 빛낸 황찬주 동문 (인문 84 입)의 가족밴드



▲ 최연소 참석 남상욱 동문 부부(경영 10 입)

점심은 도시락으로 준비한 불고기와 김치를 곁들인 한식으로 하였다. 식사 후에는 황찬주 동문(인문 84)이 리드하고 황동문의 와이프와 자녀로 구성된 밴드팀의 반주로 금번 야유회의 메인 이벤트 팀별 노래자랑을 하였다. 황동문 가족의 밴드팀은 무려 석 달간이나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각 팀의 요청에도 흐트러짐 없는 반주를 하였다. 참석한 동문들은 세팀으로 나누어 황팀은 "토요일 밤", 김팀은 "아빠의 청춘", 이팀은 "잘있어요"를 즉석에서 나누어 준 악보를 가지고 연습하고 경연에 참여하였다. 각 팀을 대표하는 심사위원이 박자와 음정, 솔로, 율동, 참여도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물론 라인댄스까지 준비한 이팀이 일등 상품을 받았다.